

심신을 치유하는 페루의 온천 명소



페루는 해안, 정글, 고산지대 등 천혜의 자연 속에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온천이 500여 개나 있다. 페루관광청이 이 중 3곳을 추천해 소개한다.

바노스 델 잉카 잉카의 황제가 즐겨 찾은 온천으로 알려졌다. 북부 까야마르카(Cajamarca)시에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수온은 70~75도이며 칼륨, 리튬이 풍부하다. 류머티즘, 기관지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구아스 칼리엔테스 마추픽추에 오르기 위해 거치는 마을에 있는 온천이다. 유황 성분의 온천수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류머티즘과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온은 38~46도.

라 칼레라 해발 5천m가 넘는 고지대에서 자연을 감상하며 온천을 즐길 수 있다. 아레키파 남쪽 치바이(Chivay)에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이자 콘도르의 멋진 비행을 볼 수 있는 콜카 협곡이 가까이 있다. 수온은 85도 이상이며 관절염, 류머티즘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애틀에서 와인의 매력에 빠지다



미국 시애틀의 와인 미식 축제인 '테이스트 워싱턴'이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이 행사에는 와이너리 235곳과 레스토랑 65개가 참가한다. 미 서부 대표 셰프의 음식 시연, 워싱턴주 와인 소개, 와인 세미나와 시음 행사 등이 마련된다. 워싱턴주 최고 와인 생산자의 와인 셀러를 볼 수 있는 레드&화이트 와인 파티는 3월 28일 열린다. 레스토랑 '아쿠아 바이 엘 가우초'에서 각종 와인과 해산물 요리를 즐길 수 있다. 농장 체험 행사인 '온 더 팝'은 29일 열린다. 시애틀 중심가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거리에 있는 농장 두 곳에서 진행된다. 농장을 둘러보고, 신선한 식재료로 셰프가 선보이는 음식을 와인과 함께 맛볼 수 있다. 같은 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비잔틴 양식 건물인 생추어리 시애틀에서는 '뉴 빈티지' 와인 시음회가 열린다. 미 서부 지역의 셰프 13명이 각종 핑거푸드를 선보이며 진행하는 와인 시음 행사다. 31일에는 미국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의 야구 개막을 기념하는 선데이 브런치가 진행된다. 시애틀의 스타 셰프가 특별한 메뉴를 선보인다. www.tastewashington.org

올해 싱가포르에선 어떤 이벤트 열리나



싱가포르관광청은 올해 연말까지 싱가포르에서 펼쳐질 주요 이벤트 일정을 발표했다. 주목할 만한 이벤트로는 세계 미식가 대회(4월), '지구촌 미식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세계 최고 레스토랑 50 시상식(6월), 싱가포르 동물원의 레인포레스트 루미나(6월), 태양의 서커스 '큐리오스'(Kurios) 공연(7월), 게임&문화 박람회(9월), 싱가포르 비엔날레(11월) 등이 있다. 영국인 스탬퍼드 래플스 경의 싱가포르 도착 200주년을 기념하는 싱가포르 바이센테니얼도 열린다. 관련 프로그램으로 오는 24일까지 마라나베이 등에서 인터랙티브 라이트 아트가 펼쳐지고, 화려한 빛으로 싱가포르의 과거를 보여주는 라이트 투 나이트(Light to Night)가 진행된다. 또 4월 28일까지 싱가포르 중국문화센터에서는 '신세계, 새 삶' 전시회가 진행된다. 앞서 3월 말에는 복합공간인 주얼 창이공항(Jewel Changi Airport)이 개장한다. 주얼 창이공항 내부에는 나무 10만여 그루로 꾸민 산책길, 세계 최대 실내 폭포, 대형 미끄럼틀, 미로 정원, 꽃 식물원, 지상 23m 높이에 설치한 캐노피 다리 등이 갖춰진다. 쇼핑과 식도락, 엔터테인먼트도 경험할 수 있다. 지난 1월 25일에는 오차드로드에 싱가포르의 로컬 디자인 브랜드 61개를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디자인 오차드'가 문을 열었다. 씨린 운 싱가포르관광청 한국사무소 소장은 "싱가포르 개항 20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기고, 싱가포르의 고유한 매력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싱가포르관광청 웹사이트(<https://www.visitsingapor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타히티에서 열리는 이색 마라톤 대회

타히티의 무레아섬에서 오는 3월 29~30일 '무레아 마라톤'이 개최된다. 무레아 마라톤 대회는 매년 약 1천5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다. 29일에는 어둠 속에서 형광 페인트를 칠한 티셔츠를 입은 참가자들이 형광봉을 들고 코스를 달리는 '아르미티 글로 런'(Aremiti Glow Run)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오후 7시 바이아레(Vaiare) 항구를 출발해 테마에(Temae) 해변까지 약 5km 구간을 달린다. 30일 오전 4시 30분부터는 폴코스(42.195km), 하프코스(21.1km), 폴리매트 아이토 레이스(Polymat Aito Race, 10km)로 나눠 마라톤이 진행된다. 마라톤 코스는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 이어진다. 참가자는 종료 후 프렌치 폴리네시아 전통 식사와 쇼를 즐길 수 있다. 무레아섬은 파야아국제공항이 있는 타히티섬에서 북서쪽으로 약 17km 떨어져 있는 섬으로 페리로 약 30분이 걸린다. 섬 주변 바다에 아름다운 산호초가 형성돼 있고,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대회 참가 등록은 웹사이트(www.mooreamarathon.com)에서 할 수 있다.



필리핀관광부, 보라카이에서 이용 가능한 호텔·리조트 추가 공개



필리핀관광부가 보라카이에서 추가로 영업 허가를 받은 호텔과 리조트 9곳을 공개했다. 이로써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총 316개가 됐다. 이번에 새로 허가받은 업체는 아주로 디 보라카이, 다이브구루스 보라카이 비치 리조트, 에루스 스위트 호텔, 해난 가든 리조트, 해난 리군 리조트, 이스라 델 마 비치 호텔, 마갈보 호텔, 만달라 스파 & 빌라, 니기 니기 투 비치 리조트다. 필리핀 정부는 보라카이 재개장 이후 정부 규정을 충족한 호텔과 리조트에만 운영 허가를 주고 있다. 보라카이 입도 시 영업 허가를 받은 숙박시설에 대한 비우치를 소지하지 않으면 입도가 거부될 수 있다. 영업 허가를 받은 호텔과 리조트는 필리핀관광부 홈페이지(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페르시아만에서 즐기는 미식... '두바이 푸드 페스티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다채로운 미식 행사가 열린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두바이 푸드 페스티벌'이 3월 9일까지 주메이라 비치 등 두바이 곳곳에서 열린다. 페스티벌의 허브는 주메이라 비치에 마련되는 '비치 캔틴'(해변의 식당)이다. 페스티벌 기간 내내 매일 열리는 비치 캔틴에서 페스티벌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푸드 트럭, 쿠킹 클래스, 액티비티 등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만날 수 있다. 두바이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위크'는 3월 2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된다. 총 21개 레스토랑이 3코스 요리를 199디르함(약 6만 원)에 제공한다. 7성급 호텔 버즈 알 아랍에 있는

'스케이프'(Scape), 로맨틱한 분위기의 고급 태국 레스토랑 '파이 타이'(Pai Thai), 아랍 정통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세븐 샌즈'(Seven Sands) 등이 참여한다. 레스토랑은 홈페이지(<https://reserveout.com/dubai-en/dubai-restaurant-week-2019>)에서 예약해야 한다. 현지인이 추천하는 숨은 맛집 '히든 젬스'(Hidden Gems)도 소개된다. 음식배달 플랫폼과 함께 인기 맛집 40곳을 선정한 뒤 시민 투표를 통해 최종 10곳이 결정된다. 이들 레스토랑은 3월 3일부터 9일까지 스페셜 코스 요리를 35디르함(약 1만1천 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유명 셰프의 마스터 클래스, 투어, 워크숍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푸드 익스피리언스', 특별한 커피 음료를 맛볼 수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스' 등의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마련됐다. 자세한 정보는 푸드 페스티벌 홈페이지(www.visitduba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켄싱턴제주, '포 마이 키즈 패키지' 출시



켄싱턴 제주호텔이 자녀에게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포 마이 키즈 패키지'를 6월 30일까지 선보인다. 패키지 출시 기념으로 '럭셔리 패밀리 가제보' 4시간 제공 이벤트도 진행한다. '포 마이 키즈 패키지'는 키즈룸, 포인포 키즈클럽, 케니라운지에서 동화 같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패키지다.

포인포 키즈클럽에서는 소근육 발달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키즈 크래프트, 쿠키클래스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어린이 뷔페 스테이션이 있는 '라올레'의 조식 뷔페, 제주 한식으로 즐길 수 있는 '돌미롱' 조찬, 루프톱 이탈리아 레스토랑 '하늘오름'의 브런치, 풀 사이드 카페 '케니라운지' 중에서 선택해 점心和 저녁을 즐길 수 있다. 또 2박 투숙 시 수제 버거와 샐러드 과일 등이 포함된 '케니 딜리버리 팩' 1회가 제공된다. 가격은 성인 2명, 소인 1명 기준 27만원부터(세금 별도).

코오롱호텔, 원기회복을 위한 미식 프로모션

경주 코오롱호텔이 5월 31일까지 3층 레스토랑 파노라마에서 신선한 제철 재료로 봄철 원기회복을 돕는 다채로운 메뉴를 선보인다. 우선 필수 영양소를 함유한 봄나물과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스프링 뷔페 프로모션'을 한다. 향긋한 나물이 입맛을 돋우는 매실 고추장 더덕구이, 주꾸미 달래 무침, 두릅 초회, 냉이 바지락 술찜, 소라 초회 등을 선보인다. 가격은 성인 4만5천원, 소인 3만5천원. 셰프의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스프링 고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씹새콤한 썩 향이 나는 썩 크림 수프, 새우 관자 발사믹 샐러드,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적포도주와 소금을 곁들인 안심 스테이크, 스페셜 디저트가 제공된다. 2인 이상 주문 가능하며, 가격은 1인당 3만5천원(이상 세금과 봉사료 포함).



송어 알 절임, 해삼 내장 맛보는 미식 여행



파크 하얏트 서울의 프리미엄 뮤직바 '더 팀버 하우스'가 4월 30일까지 '카라스미(カラスミ, 송어 알 절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일본 3대 진미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이후에는 우니(성게 알), 고노와다(해삼 내장) 등을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카라스미 프로모션은 무제한 주류를 포함한 해피아워, 주류 한 병을 포함한 2~3인 세트, 단품 등으로 구성된다. 가격은 해피아워 1인 6만9천원, 세트 25만원부터, 단품 3만6천원부터(세금 포함, 봉사료 없음)다. 짭짤한 카라스미와 달콤한 감칠맛을 지닌 고구마 소주의 완벽한 마리아주를 경험할 수 있다. 해피아워는 평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트레이 세트로 제공하는 음식은 제철 활어회, 송어 간장 구이, 카라스미 오니기리, 달걀찜, 단호박 디저트 등이다. 고구마 소주 '킷초 호우잔', 하우스 사케,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 생맥주, 화이트 와인 등을 무제한 즐길 수 있다. 세트 이용 시 카라스미 아보카도 사과 샐러드, 활어회 플레이트, 카라스미 소금 등의 요리를 선택해 주류 한 병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여의도 메리어트, 테이크 아웃 메뉴 출시

서울 여의도에 있는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2층에 위치한 컨템포러리 레스토랑 파크카페가 테이크 아웃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끼니를 거르기 쉬운 직장인, 가정에서 건강한 간편식을 즐기고자 하는 고객 등이 편리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마련했다. 클럽 샌드위치, 컵 과일로 구성된 '비즈니스 박스', 견과류를 곁들인 닭가슴살 샐러드와 슈퍼 곡물 요구르트로 구성된 '헬시 박스', 연어 스테이크와 스테이크 샐러드 & 컵 과일이 제공되는 '스태미나 박스' 등이 있다. 가격은 2만5천원(봉사료와 세금 포함). ☎ 02-2090-8050



서울드래곤시티, 디저트 뷔페 즐기는 '딸기 스튜디오' 선보여



서울드래곤시티가 당일 수확한 딸기로 만든 '디저트 뷔페'를 즐기며 카메라 앱인 '그래픽'(Grabpic)으로 사진을 찍으면 인화된 사진을 집까지 배송하는 '딸기 스튜디오'를 진행한다. 스트로베리 프랑자넨, 스트로베리 카넬레, 딸기 마카롱, 베리 티라미수, 딸기 프로마쥬 블랑 파나코타 등 이색 디저트 20여 종을 선보이고, 웰컴 드링크로 딸기 에이드나 딸기 라테를 선택해 즐길 수 있다. '딸기 스튜디오'에서는 고객 주문 시 셰프가 즉석에서 딸기 찹쌀떡과 호떡을 만드는 '라이브 스테이션'도 선보인다. 추가금을 내면 딸기가 가미된 와인·맥주·시그니처 스트로베리 칵테일이 제공된다.

트럼프 호텔 라스베이거스, 비즈니스 출장자를 위한 프로모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라스베이거스가 비즈니스 투숙객을 위한 스위트 딜 프로모션을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객실을 10개 이상 예약하면 투숙객 전원에게 원 베드룸 스위트로 업그레이드해주고 웰컴 아메니티 제공의 혜택을 준다. 회의·행사 공간 예약 시 다과도 제공한다.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라스베이거스는 1천232개의 스위트룸과 50개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을 갖추고 있다. 스파, 비즈니스 센터, 살롱, 레스토랑, 야외 온수 수영장 등도 있다. 또 대로변까지 무료 순환 교통수단을 운행한다. 예약 문의는 트럼프호텔 한국사무소(☎ 02-733-9037)에 할 수 있다.



에어서울 시즈오카 항공권 구매자에게 여행선물세트 증정



에어서울이 인천~시즈오카 노선 항공권 구매자 중 500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여행선물 세트를 증정한다. 4월까지 유효한 항공권에 적용된다. 경품은 8천엔 상당 시즈오카 현지 호텔 숙박권(10명), 일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3천엔 상당 백화점 상품권(50명), 공항버스 이용권(300명), 시즈오카 지역 관광 명소를 돌아볼 수 있는 4천500엔 상당 'JR 시즈오카 미니패스'(10명), 5천엔 상당 시즈오카 택시 이용권(30명), '사와야카 합박 스테이크' 식사권(100명) 등이다. 행사 기간은 3월 17일이며, 당첨자는 3월 21일 에어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델타항공, 8월 11일까지 에릭남 후원



델타항공이 8월 11일까지 가수 에릭남의 공식 후원 항공사로서 서울~미주 구간 여행을 지원한다. 대신 에릭남은 델타항공의 홍보대사로서 노선과 서비스를 홍보할 예정이다. 델타항공은 지난해 4월 멕시코에서 진행된 에릭남의 세 번째 EP앨범 'Honestly'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지원했으며 6월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15개 도시에서 진행된 총 16회의 'Honestly' 북미투어를 후원했다. 에릭남은 오는 4월 2일 신규 취항하는 인천~미네아폴리스 구간 항공편의 델타 원 스위트, 델타 프리미엄 셀렉트, 기내 와이파이 및 무료 문자 서비스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출신인 에릭남은 2016년 GQ 코리아 선정 '올해의 남성', 경제지 포브스의 '2017년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에는 평창동계올림픽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동했다.

비엠펙항공, 베트남 푸꾸옥~홍콩 구간 신규 취항



베트남 국적 비엠펙항공이 4월 19일 베트남의 대표 관광지 푸꾸옥과 홍콩을 잇는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 푸꾸옥~홍콩 노선 항공편은 주 4회 왕복 운항한다. 운항 소요 시간은 편도로 2시간 45분이다. 푸꾸옥에서 오전 10시 50분 출발해 홍콩에 오후 2시 35분 도착한다. 복항편은 오후 3시 40분 출발해 푸꾸옥에 오후 5시 25분 도착한다. 해당 노선 탑승권은 매일 오후 2~4시에 진행되는 비엠펙 골든 타임 프로모션을 통해 특가로 구매할 수 있다. 비엠펙항공은 인천~푸꾸옥 노선을 지난해 12월 22일 취항해 현재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인천에서 오전 1시 45분 출발해 푸꾸옥에 5시 35분 도착하고, 복항편은 오후 3시 40분 출발해 오후 10시 55분 돌아온다.

터키항공, 봄맞이 특가 항공권 프로모션



터키항공이 봄 여행 시즌을 앞두고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을 3월 1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특가에는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내 인기 여행지뿐만 아니라 슬로베니아, 체코, 크로아티아, 모로코, 몰타, 이스라엘 등 새로 주목받는 여행지가 포함된다. 이번 특가 항공권은 일부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는 10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왕복 항공권 최저 가격은 일반석 85만원, 비즈니스석 225만원(세금과 유류할증료 포함)부터다. 특가 항공권은 24시간 운영되는 터키항공 한국어 콜센터(☎ 02-6022-4270, selsales@thy.com) 또는 가까운 여행사를 통해 살 수 있다.

로열브루나이항공, 브루나이~브리즈번 구간 재취항

로열브루나이항공이 6월 11일부터 브루나이~호주 브리즈번 구간에 주 4회 일정으로 재취항한다. 브루나이에서 매주 화·수·금·일 오후 7시 50분에 출발해 브리즈번에 이튿날 오전 4시 45분에 도착하며 복항편은 월·수·목·토 오후 5시 30분 출발해 오후 10시 50분 돌아온다. 인천에서는 화요일 12시 20분에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면 브루나이에서 브리즈번으로 가는 항공편으로 갈아탈 수 있다. 복항편은 브리즈번에서 월·수 오후 5시 30분에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면 인천까지 편리하게 올 수 있다. 카람 찬드 로열브루나이항공 CEO는 "브리즈번 재취항을 통해 호주 승객에게 다양한 동남아 목적지로의 여행 경험을, 브루나이와 그 외 다른 국가 고객에게 호주 퀸즐랜드로의 편리한 스케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로열브루나이항공의 브리즈번 직항편 마지막 운항은 2011년이었다.



프린세스 크루즈, 무료 알래스카 여행 이벤트



프린세스 크루즈가 알래스카 무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한다. 마이크로사이트(www.princessa2019.com)를 방문해 자신에게 맞는 여행 스타일을 찾는 쿼즈에 응모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알래스카 크루즈 2인용 스위트 객실 7박 8일 이용권과 인천~시애틀 왕복 항공권 2장을 제공한다. 행사는 3월 17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는 홈페이지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발표된다. 프린세스 크루즈는 이번 이벤트를 위해 단편 스토리 영상 '프린세스'(Princessa)를 제작했다. 어린 소녀 프린세스가 배를 타고 전 세계 대륙을 여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는 내용이다. www.princesscruises.co.kr, ☎ 02-318-1918